

여대생 면전에 "몸팔아 교재사라"...

곽강사의 글을 읽으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는지 이 관련기사

해는 간다. 자본주의에 몸담고 사는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창녀고, 노동자의 막노동이나, 녀자의 몸팔기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곽강사의 글은 어차피 늘 창녀짓은(남자든 여자든)하는 거니까, 그것을 해서 번 돈으로 "책을 사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니까, 중점은 '몸을 팔아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라'라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 몸은 은유적인 관점에서 다 이미 팔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치만 곽강사의 강의든, 해명 글이든 별로 이런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해명 글조차 현학적인걸 보면 졸던 수강생들 그 문장만 듣고 별떡 잠이 깬음에 분명하다. 게다가 곽강사는 자신이 의도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연세인 운운하며 열내고 있다.(전형적인 마르크스 주의자 지식인들의 반응이지..손석춘이 생각한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으로는 '여성을 비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의 비극적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의미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 말하다 보니 쓴 표현이었다'고 정중히 사과하기 보다는 고압적으로 '이 무식한 청중들아, 이런 훌륭한 논리도 못알아듣냐?'고 성질내는 것이 당연하겠지.

뭐, 거시적인 마르크스 이론으로는 남자가 노동을 팔던(몸을 팔던) 여자가 몸을 팔던 그게 그거겠지만, 돋보기로 들여다 보면, 여자는 착취당하는 남성에게 재 착취당하는 몸이라는 것이 페미니즘 진영의 반론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계급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페미니즘은 노예의 노예로 존재하는 여성계급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곽강사가 이런 페미니즘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성의 노동팔기와 여성의 몸팔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은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성의 노동팔기와 여성의 몸팔기는 전혀 다른 스코프의 문제이기에 그 발언이 남성청중에게는 모독이 아니지만, 여성들에게는 깊은 모독으로 느껴지는 것이다.(더욱이 발언자가 잠재적 가해자라는 구도를 생각하면....) 여성도 노동의 생산물을 빼앗기고 남성도 몸을 빼앗길 수 있다는 평범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남성인 곽강사, 자신의 육체가 농락당하는 상상-감옥에서 집단 강간당하기?-에 소름이 부르르 돋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이런 이미지인 "몸팔기"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무심하게 발언하는 곽강사의 무의식적인 남성중심적 사고, 여성 청중, 독자, 대화 상대자의 시선을 광그리 무시한 그 마초성을 지탄하는 것이다. 그의 해명글조차, "세의 지성들 이런 것도 모르냐는 그의 말투"는 오직 남성의 시선과 판단만 염두에 둔 냄새가 풀풀 난다.

곽강사, 당신은 성적으로 비하할 사전의도가 없었기에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 보다는 죄질이 덜하겠지만,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존중한다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청중으로 있는

가장 많이 본 기사

- 깐깐한 네티즌, 찢찢매는 단체들
- "지구 님은별 우주절반"
- 삼성 이건희회장 자녀들 "여세 부당" 소송
- 집 밖에서 내 컴퓨터 마음대로
- [사설]교육부 올바른 결정 내렸다

하니와 함께

✉ 오늘의 이메일

☎ 하니 잘하시오

☎ 한겨레투고

토론(전체 토론방 목록)

• 게시판 이용안내

•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 통일·남북관계

• 노무현의변신?

• 새만금간척사업

• NEIS,교육정책

• 유시민발언논란

• 흡연권? 형연권!

• 언론권력·개혁

• 신지역감정?

• 전두환재산

• '사스' 공포

• 검찰개혁 파문

• 병역기피·병역면제

• 박정희기념관 건립

• 주한미군 득과 실

• 부실공화국 대한민국

• 이혼·가정폭력

• 이공계 기피 현상

• 도박? 대박^^ 쪽박ㅠㅠ

• 집값 부동산 정책

• 빈익빈 부익부

• 재벌개혁